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우리가 가장 눈부실 때

성경: 사무엘상 26장 17-25절

Tag:

17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 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나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18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미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와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20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21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2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23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며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25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삼상26:17-25)

우리가 가장 눈부실 때는 언제인가? 건강할 때, 젊을 때, 잘 나갈 때, 인기 있을 때, 취직되었을 때, 출세했을 때?

건강은 잃기 쉽고, 곧 늙으며, 잘 나가더라도 각종 악재가 언제나 있으며, 인기처럼 빨리 식는 것도 없고, 취직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에 불과하고, 출세란 청와대 비서관처럼 여론의 향방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다.

성경에 보면 선으로 악을 갚을 때가 가장 빛나고 눈부신 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출세, 인기가도를 달리다가 낙마된 다윗. 낙마 가운데 회복되는 다윗)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줌.

-사울이 친히 군사 3천을 몰고 출동함.

-그러나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됨. 쫓는자는 잠을 자도, 쫓기는 자는 자지 못함.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직무를 유기함. 다윗의 공격을 받게 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함.

-다윗이 아비새를 시켜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게 함.

-다윗이 건너편 산꼭대기에서 아브넬을 불러 경계에 실패한 장수를 꾸짖음.

18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다미는 만일 사람들이면(아브넬 무리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결과적으로 망명하는 수 밖에 없음을 영적으로 풀어냄;정서적 감흥을 이끌어내는 수완이 능함.) 오

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와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
이다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다른 나라로 가라.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약간 민족주의적)

-내가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나 이곳에서 피를 흘리며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25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사위이기도
함)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다고 반드시 승
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고 헤어짐.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축복함. 다
윗이 왕, 장인어른, 정치적 경쟁자로부터 축복을 받게 됨. 자신이 잘
못하고 있는 반역자여서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도의적 죄인
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격상되는 순간. (이 순간이 다윗에게는 가장
눈부신 순간이었을 것이다. 영적으로 가장 감흥이 되는 순간.)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 질 것을 잘 알고 있
음.

-다윗은 이미 사울왕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고, 자신도 용
서하였으니(의를 얻었으니, 이 회개와 용서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사울왕이 자신을 해치지 못할 방도를 구하게 되고,
블레셋왕의 신하로 망명생활을 하게 됨. 오히려 적을 속이고 적 속에
숨게 됨. 다윗의 한 수.

-사울왕의 회개가 다윗의 억하심정을 누그러뜨리게 함.

-이 순간이 나는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눈부실 때가 아니었을까 짐
작하게 함.

시글락에서의 다윗

-다윗의 최대 위기 사건 (실수 가운데 회복)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와의 싸움을 계속함. 아말렉을 쳐부수며 사울왕이 하지 못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려고 하신 사업. 국경 수비대의 역할을 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일이었지만, 후일 다윗의 왕국을 튼튼하게 하는 일을 함.

-블레셋 왕은 다윗의 망명으로 오랜 숙원을 계획함.

-명장 다윗을 앞장세워 이스라엘을 점령코자 함.

-그러나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다윗의 참전은 무산됨.

-그러나 적진에 다윗이 없다는 것 때문에 승리는 따놓은 당상.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의 복수로 모든 가족과 재산이 몰수 당함.

-다윗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됨.

6 백성들이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삼상30:6)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다윗이 아말렉의 심기를 건드림.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몰고 백성들의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전쟁에 출전함.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시글락 방위를 건의했을 것임.

-다윗은 이도 저도 못 하는 불안한 마음에 시글락 방위를 사소하게 여겨 모든 군사를 대동하고 참전할 때 위기를 당함. (적이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말라.) -사실 위기의 순간에는 생각나지 않고, 놓치는 것들이 많게 됨.

-다윗의 무리들이 모두 함께 울다가(다윗이 함께 울었을 것임, 그는 책임을 회피하며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임.) 문득 하나님을 힘입음. 다윗의 영적 DNA가 작동함.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

-그는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기에 갈급함.

-그는 재난을 당하여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든 아말렉을 쫓아가서 남아있는 식구들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는가를 생각하게 됨.

-그는 아히멜렉을 오라 해서 하나님께 물어봄.

-병든 애굽병사/아말렉의 패잔병을 돕고 그들의 행방을 알아내고, 기습해서 모든 식구와 재산을 되찾음.

-하늘을 찌르는 사기, 뚝뚝 뭉친 형제애, 서로의 목숨을 지키는 전우애 등으로 다윗의 군대는 천하무적이 됨.

-아마도 이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눈부실 때라 여겨짐.

뒤를 이은 다윗의 치욕스러운 사건.

-다윗이 평안하고, 안정스럽고, 통치자로서의 갑질이 익숙해졌을 때.

밧세바 사건이 터짐.

-왕이 되기 전의 다윗과 왕이 되고 난 다음의 다윗의 태도 변화

-당시의 왕은 절대 명령권자이니만큼, 비록 왕이 옳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하다고 여길 경우 무조건 복종하게 됨.

-밧세바도 그랬을 것임. 그녀가 의도적이었던 상관없이.

-권한이 있는 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 권한에 따르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 자. 그 자유를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자. 약자를 착취할 수 있는 자. 충성심을 유발해서 과도하게 자신에게 희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

-아랫사람의 충성심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사지로 내 몰 수 있는 자. 그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는 자가 됨. 가장 비참한 모습.

-가장 추악한 형편으로 추락해버린 다윗의 모습.

-거대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맘대로 법을 만들어버리는 자들.

암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사건

-암논은 이복동생을 겁탈함.

-암살롬은 그런 형을 암살함.

-암살롬이 어머니 나라로 망명함.

- 요압이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압살롬 귀국을 주선함.
-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그를 대면하기를 원치 않아 함.
- 다윗은 압살롬이 왕자로서 그저 조용히 여생을 보낼 것을 원함.
- 압살롬에게는 음흉한 야망이 있음.
- 사실 그래서 암논을 죽였음.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 그리고 끝내는 귀국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봄.
- 활개면허를 얻은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침.
- 분명한 반역.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야심.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임. 그러나 수수방관함. 아버지의 마음. 마귀가 이점을 노리고 압살롬을 충동함. 그는 악한 아히도벨의 말에 현혹됨.
- 측근들을 모으고 반역하는 일이 커져감.
- 다윗은 자신의 과거 실책 때문에 압살롬의 일에 대해 모른척하고 방심함. 그래서 결국 반역에 이은 내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됨.
- 결국 다윗의 노년이 느와르가 됨. 느와르는 눈부시지 않다.

우리는 더러워진 화려함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 저주가 어디 있는가?

다윗이 가장 눈부실 때가 사실은 선으로 악을 갚을 때가 아닌가?

- 가장 당당하고, 가장 선할 때
- 우리 모두에게는 영욕이 함께 한다.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세상에서 떠나 속세를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내가 유리해졌다고 생각하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갑질하게 되고, 금방 제일 정의로워진다.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내 곁에 있는 자들

이 자꾸 실수를 한다. 의리로 갈 것인가(덮는 것), 법으로 갈 것인가, (죄인을 처단하는 것) 영성으로 갈 것인가?(함께 회개하고 자존심, 자리, 생명을 내려 놓는 것)

-심지어 화려함으로 더러워졌을때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을 잊지 말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가장 눈부신 순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정한 영광의 길이다. 다른 영광이 세상에는 없다. 악은 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악은 선으로 이긴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가장 눈부실 때이다.

〈찬양예배〉

제목 : 갑자기 닥치는 멸망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0절

Tag:

-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 2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들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 9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 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국지성 폭우가 의미하는 것. 재난은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3절. - 4절. 2020년은 재난의 해. 재난에 대한 건강한 신학이 사라진 해. 신학적 깨우침이 있을때까지 재난이 계속될 것인가?

과거 흑사병을 통해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많음. 그러면서 세상은 진일보하게 됨.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경건한 자라는 정체성의 이점; 재앙이 피할 수 없도록 임하지 않음.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

-그러나 그들도 깨어 있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똑 같음.

5절. 빛의 아들, 낮의 아들;어둠에 있지 아니함.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못함.

6절. 다른 표현.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성령께서 세상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살피라. 살피고 대비하라. (주보)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갑옷. 가슴을 보호하는 구리판. 믿음과 사랑>정의와 율법이 아닌.

투구;머리를 보호하는 헬멧. 영혼을 보호하는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소망>죽음. 죽음을 이기는 소망.

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심판과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

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 있으라;깨어 기도하며, 정의로우며,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라.